

“사회문제 다룬 작품... ‘공감 사회’ 만들고파”

‘광주영화제작지원’ 독립 단편 선정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이한규씨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영향력을 통해 우리 사회 단면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동강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2학년 이한규(66·사진)씨는 지난 4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광주영상영화진흥지원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의 독립 단편 부문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광주 영화산업 활성화와 지역 문화 자원 대중화 기여를 위해 광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이씨는 영화 제작에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씨의 작품명은 ‘로프(rope)’다.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낙관함을 꼬집는 내용이다.

그는 “‘로프’는 개인이나 조직 내 생존의 줄을 의미한다. ‘로프’를 너무 쉽게 잘라내는, 특히 조직 내에서 해고나 갑질 등으로 붕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자는 스토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관심...작년 ‘만학도’에 도전

‘로프’상반기 크랭크 인...“영화제 출품”

이씨는 1968년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높아 지난해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2학년으로 만학도가 됐다.

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다큐멘터리 작품에도 도전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이전에도 수많은 공모전에 참여해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20년 ‘제15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에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정읍 전국실버영화제는 국내 최초 노인 영화제다.

또 2021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공모전에



서는 다큐멘터리 ‘설국 하늘다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KBS ‘시청자가 만든 TV프로그램’에서 ‘설국 하늘다리’와 ‘발로 쓴 수필, 무릎길 518’이라는 작품이 함께 소개됐고 광주MBC 등에서도 다큐멘터리 11편이 방송됐다.

이씨는 상반기 내에 ‘로프’를 크랭크 인 할 계획이다.

그는 “‘로프’ 준비 당시 학과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촬영 때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개인 실력뿐 아니라 학과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품이 마무리되면 여러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특히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니 FX3 4K 시네마 카메라, 전용 I-Mac 그래픽 실습실,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비주얼 스튜디오 등 최고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에서 유일한 영화교육과정 학과로 ▲AI콘텐츠 제작 ▲인 크리에이터 ▲언리얼 엔진5를 포함한 모션그래픽 교육과정 등을 통해 관련 취·창업 분야에서도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다이 기자



하나님의 교회, 무등산국립공원 정화활동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22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

하나님의교회 봉사자들은 산책로 10km 구간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 빨대, 음식물 포장지, 바닐라봉지, 나무젓가락 등 50여 종양제봉투 20개(5kg) 분량의 각종 쓰레기와 곳곳에 걸린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정화활동에 동참한 박모(26)씨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환경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구 사막화를 막고 환경 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뿌듯해했다.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는 “지역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국립공원이 푸른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오늘 활동에 힘쓴 봉사자들과 이곳을 방문한 이웃들 모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목포경찰, 상반기 집회·시위자문토 정기회의

목포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4-2025년도 주요 집회·시위 현황 보고 및 집회시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법정 자문위원회로 교수, 변호사,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질서를 해하는 불·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수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충실한 자문 역할을 통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평온한 목포 지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장흥경찰, 초기 화재 대응 역량 강화 소방훈련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1층에서 초기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가상 화재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화재 상황 전파·신고 ▲인명 대피 ▲소화기·소화전 사용 ▲중요 문서 반출 ▲환자 응급조치 등 초기 화재 진압 순으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들의 소방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응급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전남농기원 ‘농식품 가공기술 설명회’ 성료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2일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농식품 가공기술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농식품 가공업체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남농업기술원이 연구 개발한 농식품 가공기술 소개, 기술 사업화 방안,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컨설팅과 공동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이뤄졌다.

3년 주기로 열리는 설명회는 6회를 맞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총 75건의 가공기술이 소개됐다.

설명회 결과, ‘천연 양파당 제조 제조방법’ 등 43건의 가공기술에 대해 도내 22개 가공업체와 무상 기술이전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8개 업체가 요청한 12건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술이전이 될 예정이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보급하고 산업체와 농가가 신속하게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전남 농식품 가공산업의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봉수 목포해양대 학군단장, 익수자 구조 감사장 수상

목포해양대학교는 22일 “학군단 단장 김봉수(사진 왼쪽) 중령이 익수자 구조 지원 유공으로 목포해양경찰서로부터 최근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6일 부대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학군단 인근 유담유원지를 산책하던 중 여성 1명이 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김 중령은 구명장비함 속 라이프자켓과 구명환을 꺼내 익수자에게 전달했다. 또 주변에 있던 해양 여성의 지인에게 구조 요청을 하도록 했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익수자에게 말을 거는 등 익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익수자는 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김봉수 중령은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언제든 어디든 나서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민을 지키는 해군 장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전남도, 여수서 산업단지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

전남도는 “최근 여수 신라스테이에서 ‘산업단지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 신규 산업용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찬회에는 전남도를 비롯해 시·군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에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및 업무 추진체계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산업단지별 추진상황 점검과 산업 용지 조기 공급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정 기자

이춘구 코레일 광주본부장 취임

이춘구(55·사진) 제14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이 23일 취임했다.

이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위해 광주승정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본부장은 “안전한 철도 구축은 코레일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뢰자산”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 프로세스를 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레일 광주본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이 본부장은 물류사업본부, 인사노무실, 기획예산처, 전략기획처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감사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장은정 기자

조선대 최민기씨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

조선대학교는 23일 “전기공학과 최민기 학생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사업의 신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최우수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 인재 양성 사업으로, 졸업 시까지 등 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올해 국내 대학 1·3학년 각 60명, 지역 추천 17명, 해외 대학 20명 등 총 157명이 선정됐다.

국내 대학 3학년 부문에 이름을 올린 최민기 학생은 지난해 5월부터 조선대 전기공학과 김남훈 교수의 전기물성실험실에서 인턴 연구생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산화갈륨 기반의 화학적·기계적연마공정 개발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 시뮬렉 특성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민기 학생은 “첨단 장비 지원과 학문적 통찰력을 제시해 준 학교와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반도체 분야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이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담양군은 “정철원 군수가 최근 군수실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대응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담양군에서도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결혼

▲박종덕·백미정씨 아들 준용군, 박준수(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임혜순씨 장녀 지용양=7월6일(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3층 아모르홀. 02-6418-5000, 010-6232-3078.

부음

▲정철지씨 별세, 정영록(광주매일신문 부국장)씨 부친상=발인 24일(화) 오전 8시 강진장례식장 1분향소(061-432-4004).